



200자 안내

## 부드러운 사회를 위하여

김경동 지음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인 저자가 1984년부터 '90년까지 일간지와 월간지 등에 기고한 짧은 글을 모아 책으로 엮었다. 저자는 “거칠고 뾰뾰한 물과 비누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경직된 ‘중성사회’를 극복하고 부드럽고 탁 트이고 다원적인 의식과 구조를 띤 ‘연성사회’를 만드는 데 우리의 정력과 시간을 기울여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단편들마다 담고 있다.

나남 / A5신 / 240면 / 3800원

## 감산의 中庸풀이

감산 지음 / 오진탁 옮김

명나라시대 사상계를 대표하는 고승으로 유·불·도 3교의 경전을 연구했던 감산이 유가사상의 핵심경전인 「중용」을 선불교의 입장에서 풀이한 책. 이제까지 주희 중심이었던 유가 경전연구의 고정된 시각에서 탈피, 선과 중용사상을 매개로 불교와 유교의 만남을 새로운 이해로 제시하고 있다.

서광사 / A5신 / 152면 / 3500원

## 主題別 哲學강의

李其相 편역

현대철학의 주요 주제로 부각되는 기술·윤리·권력·과학·역사·가치 등의 문제를 주요 철학자의 해답 원전을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했다. 독자로 하여금 문제에 대한 각 철학자의 논증을 스스로 추적해나가 철학적 사고방식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된 점이 특징이다. 아직 국내에 번역되지 않은 철학원전의 부분적 소개라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동아출판사 / A5신 / 318면 / 4200원

## 털없는 원숭이

데스먼드 모리스 지음 / 김석희 옮김

‘동물학적 인간론’이라는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은 동물행태학적 관점이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인간의 행동특성과 문화적 의미를 고찰하고 있다. ‘털없는 원숭이’로서의 인간의 발생학적 기원과 양육·섹스·음식·몸치장 등의 특성이 다른 동물과의 비교를 통해 냉정

하게 관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자랑하는 ‘문화’의 허구성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소설을 능가하는 문학적 문장과 발상자체의 신선함이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정신세계사 / A5신 / 266면 / 4000원

## 交通事故解析論

홍성민 편저

현재 교통안전진흥공단 책임연구원으로 재직중인 저자가 교통사고조사 및 분석 방법론에 관해 기술한 책 ‘우리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방법론을 개발해내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도 합목적적인 교통사고 조사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집필의도. 전체 3장으로 나누어 교통사고의 원인조사를 위한 방법과 절차, 교통사고 해석과 관련된 국내외의 사례를 소개하고 美교통안전원(NTSB)의 교통사고 조사기법을 번역하여 수록했다.

익산 / A5신 / 366면 / 12500원

## 야누스를 쫓는 정치비록

김삼웅 편저

일제잔재에 따른 정치불신이 독재와 독선 그리고 부도덕한 정치를 가능케 했음을 서두에서 밝힌 정치평론가의 칼럼집. 1부 정치지도자론 서설 등 모두 3부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정치허무주의에 빠져 양비론을 앞세우거나 도매금으로 정치를 매도할 때 반드시 독재가 끼어들게 된다고 경고한다.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의 집약을 촉구하는 저자의 날카로운 정치관이 돋보이는 책.

학민사 / A5신 / 318면 / 4200원

## 비서실무

한국인력개발원 엮음

비서업무 수행에 따른 기본자질을 향상시켜 줄 비서의 태도·기본예절·마음가짐 등 비서실무 전반에 걸쳐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 비서교본. 구미사회에서는 비서직이 가장 유망하고 인기 있는 직종임을 전제한 이 책에는, 여성 특유의 감성이 장점으로 부각될 뿐 아니라 전문직으로서 상사를 보좌하면서 동시에 경영력을 강화시키는 직종이라고 강조돼 있다.

민지사 / A5신 / 256면 / 3800원

## 성령운동의 제3물결

김동수 지음

현재 부산에서 목회활동을 하고 있는 전도사인 저자가 기독교교리 가운데서도 다루기가 까다로운 성령론을 주제로 성령운동의 실태점검과 지향점을 제시한 책. 목회학적 입장에서 씌어진 이 책에는 한국의 교회안에서 주로 논의돼온 문제들이 중점적인 연구대상으로 지적돼 있으며, 가장 첨예한 쟁점인 ‘방언’에 대해

서도 자세히 논하고 있다.

예찬사 / A5신 / 218면 / 3000원

## 환상의 끝

오영석 지음

1959년 현대문학으로 데뷔, 왕성한 작품활동을 해온 작가의 네번째 장편소설.

대기업체 사장을 아버지로 둔 쌍둥이 자매와 이 사이에 끼어든 한 남성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애증의 갈등과 방황, 복수와 연민의 드라마가 흥미롭게 펼쳐진다. ‘재미와 품격을 함께 갖춘 애정소설의 진수를 맛보게 하는 소설’이라는 것이 평론가 신동하씨의 평이다.

세계일보출판부 / A5신 / 296면 / 4000원

## 분노의 왕국

문영남 지음

조선조의 마지막 왕인 순조의 적자가 생존해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쓴 僞史장편소설. 갖은 우여곡절을 겪으며 조선을 재건할 왕으로 성장해온 호왕자가 더이상 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이 땅의 현실에서 지나는 의미는 무엇인가를 집요하게 묻고 있다. ‘우리를 무너지지 않고 하나로 모일 수 있게 하는 위대한 정신이 바로 王’이라는 것이 저자의 말. 제1회 MBC 문학상 당선작품이다.

신원문화사 / A5신 / 350면 / 4000원

## 명상록

C. 크레모나 편저 / 성염 옮김

계몽시대를 열어놓은 사상가이자 교부학자인 아우구스티누스의 어록과 선집을 엮은 책. ‘자유’ ‘윤리’ ‘시간과 영원’ 등 인간의 삶에 있어 중요한 철학적 주제들에 대한 아우구스티누스의 명언들을 28개의 소주제로 나누어 엮었다. 하느님 앞에서 자유로운 인간이 될 것과 전체를 포괄하는 인간의 실존적 사랑을 강조하는 그의 사상을 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솔하고 인간적인 메시지들을 통해 현대인들에게 인간의 참된 가치와 삶의 규범을 되새기게 하는 책이다.

성바오로출판사 / A5신 / 390면 / 4800원

## 사랑하는 사람, 오직 그만이 혁명적이다.

크리슈나무르티 지음

명상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크리슈나무르티의 아포리즘 모음. 함축적이고 유려한 문체로 삶에 대한 조용한 성찰을 담은 내용으로 국내에도 많은 독자를 확보하고 있는 그는, 이번 책에서 ‘사랑’으로 상징되는 인간관계의 여러 모습들을 살피고 있다. 본문에 베르나르 뷔페의 그림을 삽입.

예문각 / A5신 / 180면 / 3200원

## 비극적 물난리

김수경 지음

서울대 치대교수이자 시인으로도 활동하고 있는 저자의 일곱번째 시집으로, ‘재해시집’이라는 부제가 말해주듯 홍수로 인한 수해와 그 교훈을 소재로 한 시편들을 모아 이색적이다. 74편의 시들을 4부로 나누어 엮었는데 국내 홍수의 역사와 구체적인 사례들을 예시하는가 하면 치수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明文堂 / A5신 / 142면 / 2500원

## 에게해의 사랑

사포 지음 / 오자성 옮김

호메로스에 비견되는 문학적 명성을 날린 그리스의 서정시인 사포의 현전하는 시작품을 한데 모은 책이다. 기독교도들에 의해 내용이 문란하다 하여 파기되는 수난을 겪기도 했던 사포의 시는 주로 사랑·갈망·질투·변심·순결·인내·죽음 등 인간의 보편적인 감정을 주제로 하여 신화화한 것이 특징.

한겨레 / A5신 / 214면 / 4200원

## 하얀 비요일

배금택 지음

소설 「영심이」로 알려진 만화가가 두번째로 펴낸 장편소설. 산부인과에서 두 산모의 아이가 뒤바뀌면서 시작되는 이 소설은 수사관의 아들과 사형수의 아들이 각각 자라면서 겪게 되는 사랑과 갈등 속에 우리사회에 내재한 사회적 모순을 드러내 보이고 있다. 뒤바뀐 아들이라는 운명의 파행적 구도 속에 현실극복의 지를 감동적으로 그린 작품.

대흥 / A5신 / 326면 / 3800원

## 씨야! 청산가자

편집부 엮음

60, 70년대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었던 어린 소년가장의 이야기 ‘저 하늘에도 슬픔이’의 주인공 고이윤복 씨의 1주기를 맞아 지독하게도 불운한 삶이었지만 밝고 성실하게 살았던 생전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유고의 글들을 모아 엮었다.

‘저 하늘에 별되어’ ‘하늘나라 나에게’ ‘잊을 수 없는 푸른시련’ ‘저 하늘에도 슬픔이’ 모두 4부로 나누어, 성장과정·일기·편지글·그리고 부인 이병숙 씨의 추모글을 담았다.

삼인행 / A5신 / 296면 / 4000원

## 홀로 그리고 더불어 사는 삶

안혜성 지음

85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베로니카

의 노래」가 당선되어 등단한 작가의 신작수필과 신문 잡지 등에 게재했던 칼럼 40여편을 묶었다. 좌우익의 이념 싸움에 부침을 잃고 그늘진 성장기를 보내야 했던 유년의 기록으로부터 70, 80년대 암울하던 정치·언론 상황에서 열린 사회와 인간다운 삶을 꿈꾸었던 언론인으로서의 고뇌 등이 담담한 필치로 기록돼 있다. 국민일보출판국 / A5신 / 256면 / 3500원

## 재미있는 애정심리

신재훈 엮음

남녀의 사랑을 정신분석학적으로 관찰하여 쓴 심리에세이. 사랑과 성의 잠재의식적인 메커니즘을 그림이나 도표 등을 이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 사랑의 실체를 재미있게 드러내 보여 준다. 생활주변의 남녀들과 돈호세와 카르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세계명작의 주인공 공들의 사랑의 심리를 조명한 것이 흥미롭다. 기린원 / A5신 / 254면 / 3500원

## 단식건강법

西勝造 외 지음 / 奇世文 외 편역

건강과 정신수양을 위한 단식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많이 실행돼왔다. 약을 쓰지 않고 자연의 힘으로 병을 예방 치유하는 자연건강법에 대해, 이 책은 일본·소련·중국·미국 등지에서 실행되고 있는 단식건강요법을 소개하고 있다. 사전지식 없이 함부로 행하여 자칫 건강을 해칠 수도 있는 '단식'의 구체적 요법을 설명한 일종의 지침서. 일월서각 / A5신 / 368면 / 5000원

## 재미있는 물이야기

이태교 외 지음

인류의 역사가 물과 더불어 시작되었듯이 물은 예부터 생명의 근원으로 여겨져왔다. 이 책은 이렇듯 소중한 '물'의 중요성을 다시금 생각해 하는 글을 모았는데, 물과 사람의 몸과의 관계, 지구의 물, 온천이란, 물마시기 건강법, 물과 재난 등 물과 인간의 관계를 살피는 글에서부터 로마시대의 수도, 노아의 대홍수, 북청물장수 등 물에 관한 세계와 우리나라의 역사이야기를 흥미롭게 풀어보이고 있다. 현암사 / A5신 / 318면 / 4000원

## 무크지

### 문학과 지역(창간호)

전국공동지역문학협회의 편

[특집1] 지역연대시 [송수권/서정학/이성선/서지일/최영철/정동주/문충성]

[특집2] 지역문학시선집 작고시인편 박목월

[특집3] ▲새 시집의 시인(이성선/서지일/강영환/박혜옥/안성길) ▲여성시 특집(송계현/신정숙/김정숙/송종규/정유정/이명주)

[창작극] ▲오구-죽음의 형식(이운택) ▲꿈들의 귀향선(김현곤)

[문학평론] ▲文義마을-죽음의 초월공간(김완하) ▲광주·전남 아동문학의 현단계(장문식)

[특집4] 민속논문(장정룡/박찬선/진용선/이종철)

중문·우리시세계 / A5신 / 498면 / 5500원

## 포항문학(11호)

[특집좌담] 90년대의 지역문화운동(정치창/채희완/이태호/손춘익)

[신작시] ▲우루과이라운드, 짐자전거에 신고(하재영) ▲바라만 보는 땅(송애경)

[시] 이시영/최석하/조무근/김종인 외

[소설] 손춘익/이대환/조중의/김일광 [포항지역 노동문학] 시/수기/편지/수필/공트

포항문학사 / A5신 / 408면 / 4500원

## 반년간지

### 법과 사회 (제4회)

법과사회이론연구회 편

[특집] 새 정치를 위한 제도개혁의 방향

▲정치제도 개혁의 기본방향(안건) ▲국회의원선거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모색(정중섭) ▲정치자금의 현실과 정치자금제도의 개선방안 모색(장명봉)

[좌담] 창조적 인권변호활동과 민주화 운동(고 조영래 변호사 추모좌담) 홍성우/손학규/장기표/양건

[논단] ▲중국법학·법제의 현황과 과제(한대원) ▲다시 한번 국가보안법을 말한다(배중대) ▲의원내각제와 정치적 소수자(안경환)

▲법적 지식도와 법적 신뢰도와 관계(윤대규) ▲계유재산의 소유이용관계와 충유(심희기) ▲정보의 흐름과 그 법적 문제들(방석호)

[기획연재] 한국법학의 반성과 과제 TV ▲한국 상법학의 과제와 반성(서헌제)

[법률시평] 공해의 발생에 대한 법적 대처방안과 소송제도(호문혁)

[자료]고 조영래 변호사 주요 변론 사건

창작과비평사 / A5신 / 272면 / 4000원



## 이색출판

### 朝鮮王朝 宮中儀軌服飾

유승옥 지음



우리민족의 생활양식 속에 담긴 전통문화 가운데 조선왕조 때의 복식을 儀軌服飾을 통해 고증한 연구서. 저자(성균관대 의상학)의 박사학위 논문을 보완하여 펴낸 이 책은 궁중

의 왕족과 상궁·나인들의 복식에 대한 고찰을 '가례도감의궤' 20종과 '정리의궤'에 錄寫된 것을 통해 검토함으로써 미술사와 복식사를 연결시킨 본격적 저서로 주목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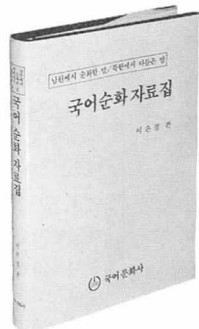
책에 수록된 20여점의 궁정기록은 가례를 치르는 육례의식 절차와 왕실의 어른인 大妃의 회갑 축하연 행사 등에 나타난 다채로운 복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 시대상을 엿볼 수 있다. 저자는 본문에서 궁중의례복식의 이해를 돕기 위해, 조선왕조시대의 문화사적 배경으로 유학·실학사상, 회화사적 배경으로 기록화·풍속화·목판화·서양화 등의 전개와 내용을 소개한다.

修學社 / B5 / 478면 / 60,000원

## 자료집

### 국어순화자료집

이은정 엮음



국어순화란 우리말에 섞여 있는 잡된 요소들을 없애는 데 1차적인 목표를 두는 것으로 언어형식에서 문법규범을 갖추는 일과 언어적 품위를 유지하는 일을 내용으로 한다. 이

책은 비록 분단된 채로 살고 있으나 동일한 어를 사용하는 언어공동체로서 남한과 북한 양측이 그동안 진행해온 우리말 순화운동의 성과들을 모은 자료집이다.

우리말에 섞여서 사용되고 있던 외래어를 대량어휘로 제시하고 이를 남한에서 '순화한 말'과 북한에서 '다듬은 말'을 나란히 배열하여,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한 점이 특색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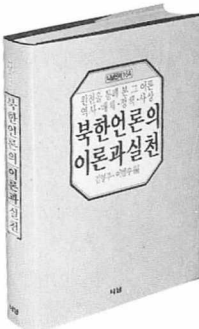
남한에서 순화한 말은 1977년부터 1991년 5월 5일까지 국어순화운동협의회와 국어심의회에서 심의 결정한 용어들을 수록했으며 북한의 용어는 1981년 백과사전출판사에서 발행한 「현대조선말사전」(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 정순기 외 11명 공편)에서 '다듬은 말'로 표시된 것을 수록 기준으로 삼았다.

국어문화사 / B5 / 444면 / 20,000원

## 학제의 책

### 북한언론의 이론과 실천

김영주·이범수 엮음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중요문헌을 중심으로 북한언론의 성격과 그 체계를 밝히고자 한 책. 북한측 언론관련 자료 및 문헌의 빈곤, 자료접근의 제한, 반공이데올로기에 의해 편

향된 관점 등 기존의 북한언론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객관적이고 진실하게 북한언론의 실상을 파악하고자 한 저술의도가 돋보인다. 이를 위해 북한측 자료 및 문헌을 원전 그대로 게재한 것이 이 책의 특징.

모두 4부로 나누어 1부에는 배순재, 라두임 등 북한학자의 '신문이론'을 전면개재하여 북한의 언론 이론의 수준을 가늠케했다. 2부 '북한언론의 역사'에서는 북한의 정치권력과 언론의 상관관계를 살피고 있으며, 3부에서는 1949년부터 최근까지 연도별 매체현황을 수록하고 있다. '북한의 언론정책'을 소재목으로 하고 있는 4부에서는 「김일성 선집」, 「로동신문」, 「근로자」 등의 문헌들 중에서 언론과 관련된 부분들을 모았는데 북한언론의 정치적 실천 및 언론정책 등의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들이다.

나남 / B5 / 728면 / 3,0000원